



# 범어사 출신 열두 선지식 법문 듣는다

선학대본산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가 범어사 출신 선지식들을 한자리에 초청, 법문을 듣는 고승대법회를 연다.

7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오전 10시 설법전에서 열리게 되는 고승대법회의 초청법사들은 동산 스님의 제자들로 범어사 주지를 역임한 스님들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범어사 출신 선지식들이 한자리에서 법회를 여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부산지역은 물론 전국 불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여름 무더위를 맑고 시원하게 씻어줄 감로 법문이 펼쳐질 고승대법회는 백일 지장기도와 함께 봉행돼 일반 불자들의 기도와 선법문이 더해져 수행열기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 고승대법회, 7월 5~10월 14일 12회 현장 포교·수행담 듣는 소중한 기회 “이같은 법석 지속적으로 마련”

7월 5일 백일기도 입재법회에서 범어사 조실 지유 스님이 법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원암 회주 능가 스님(7월 14일),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7월 17일), 영주암 회주 정관 스님(7월 24일), 정계사 조실 고산 스님(8월 3일), 조계종 前 포교원장 무진장 스님(8월 13일), 서울 대가

사 주지 흥교 스님(8월 23일) 등이 차례로 법좌에 오른다. 동산 스님의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그동안 포교, 복지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 생생한 포교담과 수행담이 담긴 법문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소중하지만 특히 그간 대중 법문을 거의 하지

않고 원효암, 내원암 등 산내 암자 법회만을 열어왔던 지유 스님, 능가 스님 등 범어사 어른 스님들의 법문을 들을 수 있어 법회의 의미를 더한다.

이 밖에도 범어사는 백일기도 6재(9월 2일)부터 막재(10월 14일)까지는 5차례에 걸쳐 범어사 출신 스님이 아닌 노 스님들을 초청하는 법석도 마련할 계획이다.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은 “범어사가 부산 경남의 선불교를 이끌어 가는 중심도량이 될 수 있도록 전국의 큰스님들과 선지식들을 초청하는 이같은 법석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051)508-3636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news.com

## “한마음이면 거뜨합니다”



삼원 재가노인복지센터 삼원나눔회 결성식 전에 가진 쌀 전달식 모습.

“마음만 있다면 어떤 봉사든 할 수 있어요. 서로 마음을 모아 앞으로 좀 더 봉사가 활발해졌으면 좋겠어요.”

6월 15일 장원의 사회복지법인 삼원 재가노인복지센터

(이사장 민소현) 노인 봉사자 모임 ‘삼원나눔회’ 결성

에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3

년 정도 봉사활동을 펼쳐온 20여명의 봉사자들은 ‘삼원나눔회’를 결성하고 유급봉사자 교육을 수료하고 봉사를 해왔던 송승희(48)씨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다

지역에 비해 자원봉사 참여율이 저조한

창원지역에서 봉사자들

의 자발적인 의지로 봉사 모임이 결성돼 의미를 더했다. 이들 봉사자들은 법인이 운영되는 무료급식, 경로식당, 노인주간보호사업,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등에서 봉사활동을 펼쳐왔으며

‘삼원나눔회’ 결성으로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날 봉사자 모임 결성에 앞서 삼원 자체 경비와 창원 봉림사의 후원으로 마련된 쌀 10포대를 관내 독거 노인 10가구에 전달하는 쌀 전달식이 열렸다.

참여문의(055)275-9875

천미희 기자

## 도롱뇽축 ‘팽팽’ 터널축



지을 스님을 응원하기 위해 도롱뇽 소송 항고심 법정에 출석한 ‘도롱뇽의 친구들’.

도롱뇽의 원고 적격 여부를 놓고 뜨거운 쟁점을 불러일으켰던 ‘도롱뇽 소송’ 항고심이 6월 14일 오전 11시 부산고법 401호 법정에서 열렸다.

11일 천성산 공사현장에서 연행돼 양산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지을 스님은 22시간만인 13일 오후 풀려나 법정에 나왔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종대 부장판사)는 이날 뜨거운 취재열기를 감안한 듯 심리가 시작되기 전 재판정 촬영을 잠시 허용한 뒤 심리를 시작했다.

### 항고심 6월 14일 열려 양측에 ‘양보·상생’ 주문 지을 스님 한때 구속돼

특히 김종대 재판장은 “이 법정이 양측의 이해와 양보로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양측의 양보를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심리가 시작되자 원고측 이종준 변호사는 “1심에서 도롱뇽의 원고자격이 없다고 각하되었지만 환경선진국들이 자연 그 자체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자연과 인간의 윤리적 공동체라는 개념에 근거 인

간의 존재 기반인 자연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전통신술보존법에 따른 절차상 흠결 등을 들어 원정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고속철도공단 변호사는 “최신 공법으로 터널을 시공하면 가장 친환경적임에도 전문적인 자료나 근거 없이 자연보호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심리는 양측의 기본적이 입장 확인과 참고인 채택, 현장 검증 채택 등에 합의하고 향후 매일 둘째 주 월요일 오후 2시 401호 법정에서 심리를 열기로 하는 등의 재판 절차와 방법에 의견을 모으고 마무리했다.

한편 천성산 공사 현장에는 지을 스님의 반대운동을 지켜보던 개국마을 주민들이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막고 있다. 지을 스님은 “도롱뇽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공사가 진행돼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 공사를 막아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라며 “대통령이 백지화를 공약했는데 정부가 뒷집지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향후 정부의 입장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 가며 끝까지 천성산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 김해 대법원사 대응전 봉불식

김해 대법원사(주지 금강)는 6월 17일 법산 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신 가운데 대응전 봉불식을 봉행했다.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봉불식에서는 50여명의 대응전 근기 없이 자연보호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심리는 양측의 기본적이 입장 확인과 참고인 채택, 현장 검증 채택 등에 합의하고 향후 매일 둘째 주 월요일 오후 2시 401호 법정에서 심리를 열기로 하는 등의 재판 절차와 방법에 의견을 모으고 마무리했다.

한편 천성산 공사 현장에는 지을 스님의 반대운동을 지켜보던 개국마을 주민들이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막고 있다. 지을 스님은 “도롱뇽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공사가 진행돼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 공사를 막아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라며 “대통령이 백지화를 공약했는데 정부가 뒷집지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향후 정부의 입장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 가며 끝까지 천성산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리는 양측의 기본적이 입장 확인과 참고인 채택, 현장 검증 채택 등에 합의하고 향후 매일 둘째 주 월요일 오후 2시 401호 법정에서 심리를 열기로 하는 등의 재판 절차와 방법에 의견을 모으고 마무리했다.

한편 천성산 공사 현장에는 지을 스님의 반대운동을 지켜보던 개국마을 주민들이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막고 있다. 지을 스님은 “도롱뇽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공사가 진행돼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 공사를 막아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라며 “대통령이 백지화를 공약했는데 정부가 뒷집지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향후 정부의 입장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 가며 끝까지 천성산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리는 양측의 기본적이 입장 확인과 참고인 채택, 현장 검증 채택 등에 합의하고 향후 매일 둘째 주 월요일 오후 2시 401호 법정에서 심리를 열기로 하는 등의 재판 절차와 방법에 의견을 모으고 마무리했다.

한편 천성산 공사 현장에는 지을 스님의 반대운동을 지켜보던 개국마을 주민들이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막고 있다. 지을 스님은 “도롱뇽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공사가 진행돼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 공사를 막아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라며 “대통령이 백지화를 공약했는데 정부가 뒷집지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향후 정부의 입장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 가며 끝까지 천성산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리는 양측의 기본적이 입장 확인과 참고인 채택, 현장 검증 채택 등에 합의하고 향후 매일 둘째 주 월요일 오후 2시 401호 법정에서 심리를 열기로 하는 등의 재판 절차와 방법에 의견을 모으고 마무리했다.

한편 천성산 공사 현장에는 지을 스님의 반대운동을 지켜보던 개국마을 주민들이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막고 있다. 지을 스님은 “도롱뇽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공사가 진행돼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 공사를 막아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라며 “대통령이 백지화를 공약했는데 정부가 뒷집지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향후 정부의 입장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 가며 끝까지 천성산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리는 양측의 기본적이 입장 확인과 참고인 채택, 현장 검증 채택 등에 합의하고 향후 매일 둘째 주 월요일 오후 2시 401호 법정에서 심리를 열기로 하는 등의 재판 절차와 방법에 의견을 모으고 마무리했다.

한편 천성산 공사 현장에는 지을 스님의 반대운동을 지켜보던 개국마을 주민들이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막고 있다. 지을 스님은 “도롱뇽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공사가 진행돼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 공사를 막아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라며 “대통령이 백지화를 공약했는데 정부가 뒷집지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향후 정부의 입장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 가며 끝까지 천성산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리는 양측의 기본적이 입장 확인과 참고인 채택, 현장 검증 채택 등에 합의하고 향후 매일 둘째 주 월요일 오후 2시 401호 법정에서 심리를 열기로 하는 등의 재판 절차와 방법에 의견을 모으고 마무리했다.

한편 천성산 공사 현장에는 지을 스님의 반대운동을 지켜보던 개국마을 주민들이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막고 있다. 지을 스님은 “도롱뇽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공사가 진행돼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 공사를 막아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라며 “대통령이 백지화를 공약했는데 정부가 뒷집지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향후 정부의 입장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 가며 끝까지 천성산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리는 양측의 기본적이 입장 확인과 참고인 채택, 현장 검증 채택 등에 합의하고 향후 매일 둘째 주 월요일 오후 2시 401호 법정에서 심리를 열기로 하는 등의 재판 절차와 방법에 의견을 모으고 마무리했다.

한편 천성산 공사 현장에는 지을 스님의 반대운동을 지켜보던 개국마을 주민들이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막고 있다. 지을 스님은 “도롱뇽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공사가 진행돼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 공사를 막아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라며 “대통령이 백지화를 공약했는데 정부가 뒷집지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향후 정부의 입장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 가며 끝까지 천성산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리는 양측의 기본적이 입장 확인과 참고인 채택, 현장 검증 채택 등에 합의하고 향후 매일 둘째 주 월요일 오후 2시 401호 법정에서 심리를 열기로 하는 등의 재판 절차와 방법에 의견을 모으고 마무리했다.

한편 천성산 공사 현장에는 지을 스님의 반대운동을 지켜보던 개국마을 주민들이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막고 있다. 지을 스님은 “도롱뇽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공사가 진행돼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 공사를 막아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라며 “대통령이 백지화를 공약했는데 정부가 뒷집지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향후 정부의 입장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 가며 끝까지 천성산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리는 양측의 기본적이 입장 확인과 참고인 채택, 현장 검증 채택 등에 합의하고 향후 매일 둘째 주 월요일 오후 2시 401호 법정에서 심리를 열기로 하는 등의 재판 절차와 방법에 의견을 모으고 마무리했다.

한편 천성산 공사 현장에는 지을 스님의 반대운동을 지켜보던 개국마을 주민들이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막고 있다. 지을 스님은 “도롱뇽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공사가 진행돼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 공사를 막아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라며 “대통령이 백지화를 공약했는데 정부가 뒷집지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향후 정부의 입장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 가며 끝까지 천성산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리는 양측의 기본적이 입장 확인과 참고인 채택, 현장 검증 채택 등에 합의하고 향후 매일 둘째 주 월요일 오후 2시 401호 법정에서 심리를 열기로 하는 등의 재판 절차와 방법에 의견을 모으고 마무리했다.

한편 천성산 공사 현장에는 지을 스님의 반대운동을 지켜보던 개국마을 주민들이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막고 있다. 지을 스님은 “도롱뇽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공사가 진행돼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 공사를 막아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라며 “대통령이 백지화를 공약했는데 정부가 뒷집지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향후 정부의 입장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 가며 끝까지 천성산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리는 양측의 기본적이 입장 확인과 참고인 채택, 현장 검증 채택 등에 합의하고 향후 매일 둘째 주 월요일 오후 2시 401호 법정에서 심리를 열기로 하는 등의 재판 절차와 방법에 의견을 모으고 마무리했다.

한편 천성산 공사 현장에는 지을 스님의 반대운동을 지켜보던 개국마을 주민들이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막고 있다. 지을 스님은 “도롱뇽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공사가 진행돼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 공사를 막아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라며 “대통령이 백지화를 공약했는데 정부가 뒷집지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향후 정부의 입장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 가며 끝까지 천성산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리는 양측의 기본적이 입장 확인과 참고인 채택, 현장 검증 채택 등에 합의하고 향후 매일 둘째 주 월요일 오후 2시 401호 법정에서 심리를 열기로 하는 등의 재판 절차와 방법에 의견을 모으고 마무리했다.

한편 천성산 공사 현장에는 지을 스님의 반대운동을 지켜보던 개국마을 주민들이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막고 있다. 지을 스님은 “도롱뇽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공사가 진행돼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 공사를 막아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라며 “대통령이 백지화를 공약했는데 정부가 뒷집지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향후 정부의 입장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 가며 끝까지 천성산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리는 양측의 기본적이 입장 확인과 참고인 채택, 현장 검증 채택 등에 합의하고 향후 매일 둘째 주 월요일 오후 2시 401호 법정에서 심리를 열기로 하는 등의 재판 절차와 방법에 의견을 모으고 마무리했다.

한편 천성산 공사 현장에는 지을 스님의 반대운동을 지켜보던 개국마을 주민들이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막고 있다. 지을 스님은 “도롱뇽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공사가 진행돼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 공사를 막아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라며 “대통령이 백지화를 공약했는데 정부가 뒷집지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향후 정부의 입장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 가며 끝까지 천성산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리는 양측의 기본적이 입장 확인과 참고인 채택, 현장 검증 채택 등에 합의하고 향후 매일 둘째 주 월요일 오후 2시 401호 법정에서 심리를 열기로 하는 등의 재판 절차와 방법에 의견을 모으고 마무리했다.

한편 천성산 공사 현장에는 지을 스님의 반대운동을 지켜보던 개국마을 주민들이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막고 있다. 지을 스님은 “도롱뇽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공사가 진행돼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 공사를 막아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라며 “대통령이 백지화를 공약했는데 정부가 뒷집지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향후 정부의 입장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 가며 끝까지 천성산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리는 양측의 기본적이 입장 확인과 참고인 채택, 현장 검증 채택 등에 합의하고 향후 매일 둘째 주 월요일 오후 2시 401호 법정에서 심리를 열기로 하는 등의 재판 절차와 방법에 의견을 모으고 마무리했다.

한편 천성산 공사 현장에는 지을 스님의 반대운동을 지켜보던 개국마을 주민들이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막고 있다. 지을 스님은 “도롱뇽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공사가 진행돼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 공사를 막아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라며 “대통령이 백지화를 공약했는데 정부가 뒷집지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향후 정부의 입장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 가며 끝까지 천성산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리는 양측의 기본적이 입장 확인과 참고인 채택, 현장 검증 채택 등에 합의하고 향후 매일 둘째 주 월요일 오후 2시 401호 법정에서 심리를 열기로 하는 등의 재판 절차와 방법에 의견을 모으고 마무리했다.

한편 천성산 공사 현장에는 지을 스님의 반대운동을 지켜보던 개국마을 주민들이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막고 있다. 지을 스님은 “도롱뇽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공사가 진행돼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 공사를 막아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라며 “대통령이 백지화를 공약했는데 정부가 뒷집지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향후 정부의 입장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 가며 끝까지 천성산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리는 양측의 기본적이 입장 확인과 참고인 채택, 현장 검증 채택 등에 합의하고 향후 매일 둘째 주 월요일 오후 2시 401호 법정에서 심리를 열기로 하는 등의 재판 절차와 방법에 의견을 모으고 마무리했다.

한편 천성산 공사 현장에는 지을 스님의 반대운동을 지켜보던 개국마을 주민들이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막고 있다. 지을 스님은 “도롱뇽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공사가 진행돼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 공사를 막아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라며 “대통령이 백지화를 공약했는데 정부가 뒷집지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향후 정부의 입장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 가며 끝까지 천성산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리는 양측의 기본적이 입장 확인과 참고인 채택, 현장 검증 채택 등에 합의하고 향후 매일 둘째 주 월요일 오후 2시 401호 법정에서 심리를 열기로 하는 등의 재판 절차와 방법에 의견을 모으고 마무리했다.

한편 천성산 공사 현장에는 지을 스님의 반대운동을 지켜보던 개국마을 주민들이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막고 있다. 지을 스님은 “도롱뇽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공사가 진행돼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 공사를 막아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라며 “대통령이 백지화를 공약했는데 정부가 뒷집지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향후 정부의 입장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 가며 끝까지 천성산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리는 양측의 기본적이 입장 확인과 참고인 채택, 현장 검증 채택 등에 합의하고 향후 매일 둘째 주 월요일 오후 2시 401호 법정에서 심리를 열기로 하는 등의 재판 절차와 방법에 의견을 모으고 마무리했다.

한편 천성산 공사 현장에는 지을 스님의 반대운동을 지켜보던 개국마을 주민들이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막고 있다. 지을 스님은 “도롱뇽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공사가 진행돼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 공사를 막아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라며 “대통령이 백지화를 공약했는데 정부가 뒷집지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향후 정부의 입장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 가며 끝까지 천성산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리는 양측의 기본적이 입장 확인과 참고인 채택, 현장 검증 채택 등에 합의하고 향후 매일 둘째 주 월요일 오후 2시 401호 법정에서 심리를 열기로 하는 등의 재판 절차와 방법에 의견을 모으고 마무리했다.

한편 천성산 공사 현장에는 지을 스님의 반대운동을 지켜보던 개국마을 주민들이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막고 있다. 지을 스님은 “도롱뇽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공사가 진행돼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 공사를 막아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라며 “대통령이 백지화를 공약했는데 정부가 뒷집지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향후 정부의 입장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 가며 끝까지 천성산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리는 양측의 기본적이 입장 확인과 참고인 채택, 현장 검증 채택 등에 합의하고 향후 매일 둘째 주 월요일 오후 2시 401호 법정에서 심리를 열기로 하는 등의 재판 절차와 방법에 의견을 모으고 마무리했다.

한편 천성산 공사 현장에는 지을 스님의 반대운동을 지켜보던 개국마을 주민들이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막고 있다. 지을 스님은 “도롱뇽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공사가 진행돼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 공사를 막아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라며 “대통령이 백지화를 공약했는데 정부가 뒷집지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향후 정부의 입장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 가며 끝까지 천성산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리는 양측의 기본적이 입장 확인과 참고인 채택, 현장 검증 채택 등에 합의하고 향후 매일 둘째 주 월요일 오후 2시 401호 법정에서 심리를 열기로 하는 등의 재판 절차와 방법에 의견을 모으고 마무리했다.

한편 천성산 공사 현장에는 지을 스님의 반대운동을 지켜보던 개국마을 주민들이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막고 있다. 지을 스님은 “도롱뇽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공사가 진행돼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 공사를 막아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라며 “대통령이 백지화를 공약했는데 정부가 뒷집지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향후 정부의 입장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 가며 끝까지 천성산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리는 양측의 기본적이 입장 확인과 참고인 채택, 현장 검증 채택 등에 합의하고 향후 매일 둘째 주 월요일 오후 2시 401호 법정에서 심리를 열기로 하는 등의 재판 절차와 방법에 의견을 모으고 마무리했다.

한편 천성산 공사 현장에는 지을 스님의 반대운동을 지켜보던 개국마을 주민들이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막고 있다. 지을 스님은 “도롱뇽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공사가 진행돼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 공사를 막아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라며 “대통령이 백지화를 공약했는데 정부가 뒷집지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향후 정부의 입장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 가며 끝까지 천성산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리는 양측의 기본적이 입장 확인과 참고인 채택, 현장 검증 채택 등에 합의하고 향후 매일 둘째 주 월요일 오후 2시 401호 법정에서 심리를 열기로 하는 등의 재판 절차와 방법에 의견을 모으고 마무리했다.

한편 천성산 공사 현장에는 지을 스님의 반대운동을 지켜보던 개국마을 주민들이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막고 있다. 지을 스님은 “도롱뇽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공사가 진행돼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 공사를 막아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라며 “대통령이 백지화를 공약했는데 정부가 뒷집지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향후 정부의 입장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 가며 끝까지 천성산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리는 양측의 기본적이 입장 확인과 참고인 채택, 현장 검증 채택 등에 합의하고 향후 매일 둘째 주 월요일 오후 2시 401호 법정에서 심리를 열기로 하는 등의 재판 절차와 방법에 의견을 모으고 마무리했다.

신라천년의 숨결, 화랑이 나를 부른다-

## 선무도 청소년 화랑(여름) 수련회

골굴사 선무도대금강문에서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선무도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절제된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나태해지기 쉬운 방학생활이나 휴가를 보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 대안교육의 새지평’ (조선일보-2001.12)이란 평가를 받은 선무도의 사찰 수련을 통해 평소 부족한 운동량을 보충하며 화랑의 호연기기를 맞춤으로써 건강하며 활기찬 삶, 화합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삶을 배워 익힐 수 있습니다.

▶ 연 제 : 아 계 - 7월 ~ 8월(2달간) ▶ 모집 인원 : 수시모집(1주, 2주, 안달)  
▶ 대 상 : 초등학교이상 개인 및 단체, 불교학생회 단체, 위탁연수

\* 참가금은 청소년 - 1일 2만원, 안달 60만원, 성인 - 1일 3만원, 1개월 65만원이니 아래 계좌로 송금  
예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후 하룻이라도 입금하지 않으면 예약확정이 안되오니 미리 해당계좌로 입금바랍니다.  
농 업 721107-52-037300 (예금주 : 설기춘)

### - 수련내용 -

- 1. 안반수의 수행법,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참선, 불교한문, 전통문화(무용, 다도)
- 2. 기림사, 감은사지, 강항사지, 동해 문무대왕릉 등의 성지순례
- 3. 주지스님의 초발심 자경문과 부모은중경 강의를 통해 심성정화 및 한문공부
- \* 지도진 : 스님·사범 등 10명, 무용강사 4명(원적교사·전공자), 다도강사 2명
- \* 접수 및 문의 : Tel. (054)745-0246, 744-1689 Fax. (054)746-0172 홈페이지 www.sunmudo.com

### 일과표

시 간	내 용	시 간	내 용
4시	기상, 예불	13시	독서와 사색
5시	좌선	14시	오후 수련(학생)
6시	조상, 등산	15시	전통문화 강습(학생)
7시	이침 공양(발우 공양)	16시	윤력(도량 청소 및 정비작업)
8시30분	불교 강의	18시	저녁공양
9시	오전 선무도수련	19시	예불, 자율학습 및 참회록(학생)
11시	108배 참회기도, 자아를 향한 서원	19시30분	저녁수련(일반인)
12시	점심 공양	21시	점오 및 취침

템플스테이 지정 사찰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굴사선무도 대금강문·선무도 대학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사 불교사회복지 까치마을